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19.(목) 11:00,
(지면) 2024. 12. 19.(목) 석간 가능

배포 2024. 12. 19.(목) 06:00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 과거 10년(2004~2013년)간 2.8cm 상승 대비 최근 10년(2014~2023년)간 3.9cm 상승해 해수면 상승 점차 가속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mm)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mm)에 비해 아주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mm), 남해안(연 2.74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항, 군산, 보령, 속초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cm 상승(연 2.79mm)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cm(연 3.88mm)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cm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변동 분석에 사용한 연평균, 월평균 및 1시간 간격의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원 공식 누리집(바다누리해양정보 서비스, <https://www.khoa.go.kr/oceangrid>)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과거 해수면 상승 현황을 비롯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을 감시·예측하고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2024. 10. 25.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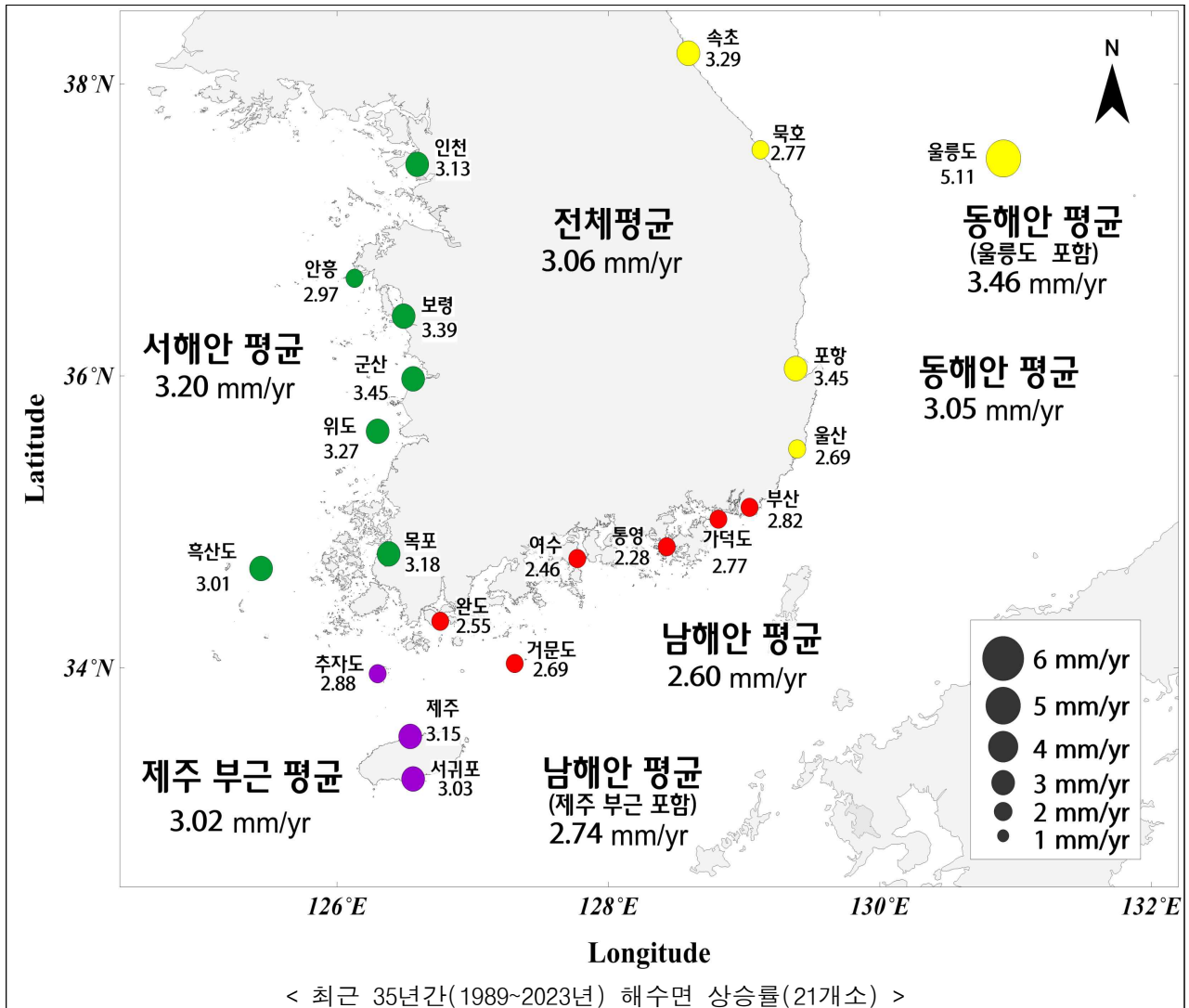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책임자	연구실장	서광호 (051-400-4105)
		담당자	연구사	정광영 (051-400-4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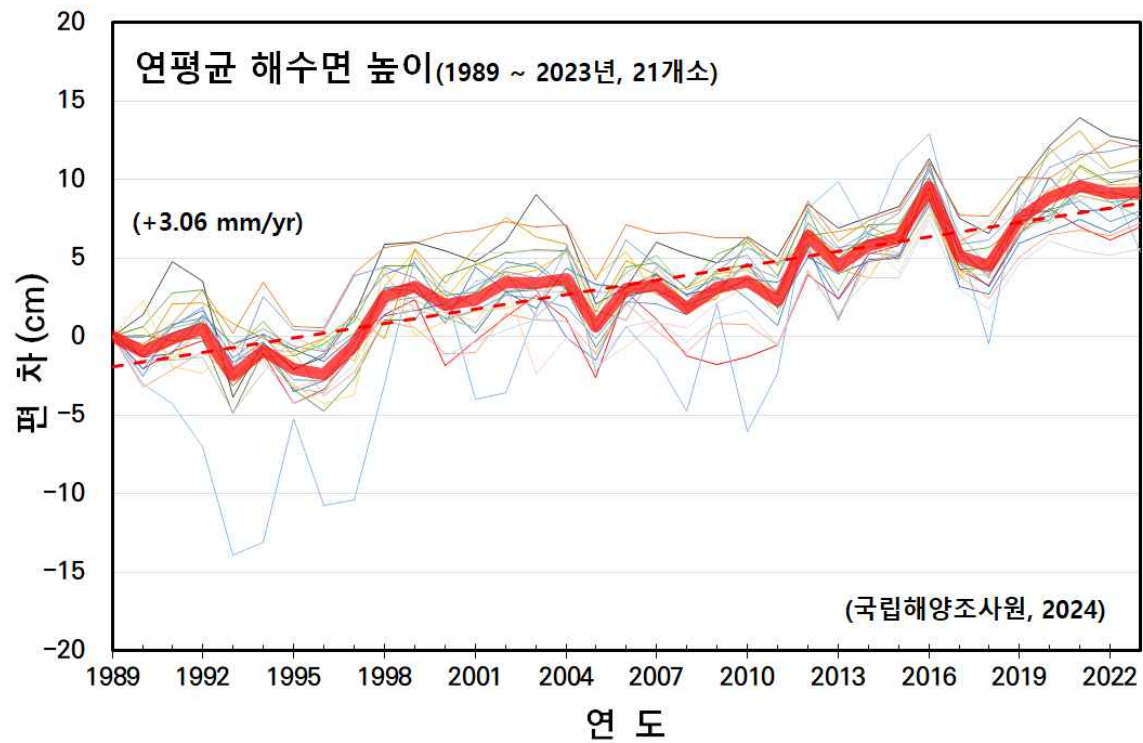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 최근 35년간 해수면 상승 분포도



붙임 2 우리나라 장기 해수면 변동 그림



< 최근 35년간(1989~2023년) 해수면 상승률 변동 >